

손자녀돌봄 유형과 조모의 건강에 관한 연구

김 혜 진

(University of Kansas)

[요 약]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서 손자녀 돌봄 유형과 중·고령층 여성의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여성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부터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손자녀 돌봄 유형을 돌봄지속, 돌봄전이, 돌봄중단, 미돌봄으로 구분하고 이 유형들이 50대 이상 중·고령층 여성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여성에 비해 손자녀를 돌보다가 중단한 여성일수록 좋은 신체건강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손자녀 돌봄 경험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손자녀 돌봄 유형이 중·고령층에 있는 여성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중·고령층 여성, 손자녀 돌봄,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국민노후보장패널

1. 서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Yang et al., 2010). 2013년도에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노인들의 기대수명은 약 82세, 여성노인들의 기대수명은 약 87세이다(OECD, 2013). 통계청(2015)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영근, 2008; 김정연 외, 2010; 박상규, 2006; 박순미, 2011). 특히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건강수준에 따라 삶

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상규, 2006; 박순미, 2011). 따라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성공적인 노후가 중요한 사회이슈인 점을 고려해볼 때(정주원·송현주, 2012),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인구의 기대수명 증가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Hughes et al., 2007), 주로 여성이 손자녀돌봄을 제공함에 따라(Baker et al., 2008; Lee and Bauer, 2010), 손자녀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백경훈, 2009; Hughes et al., 2007; Jun, 2015). 예를 들면, 백경훈(2009)은 손자녀돌봄이 한국 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미국 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영향의 정도가 미비하지만 손자녀 돌봄은 조모의 건강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Hughes et al., 2007).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외국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른 연구결과를 보였으며(백경훈, 2009; Hughes et al., 2007), 이는 손자녀돌봄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대상이 속한 사회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전혜정 외, 2013; Hayslip and Kaminski, 2005). 한국은 전통적으로 3세대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런 상황에서 조모들은 자연스럽게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였다(Lee and Bauer, 2010). 반면 미국에서는 성인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조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Baker et al., 2008). 한국의 조모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Maehara and Takemura, 2007), 손자녀 돌봄이 한국 조모의 건강에 미치는 결과는 미국 조모의 건강에 미치는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양혜경(2016)은 손자녀돌봄과 노인의 건강과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는 이유를 손자녀 돌봄에 따른 노인의 건강의 변화를 정확히 추적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양혜경(2016)의 연구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연구대상의 절반이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볼 때, 위의 지적은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횡단적인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순돌 외(2015)의 연구에서도 손자녀돌봄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손자녀 돌봄 상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손자녀돌봄 여부에 따라 조모의 건강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관점에서 돌봄 상태의 변화에 따라 조모의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실정이다(정순돌 외, 2015; 양혜경, 2016; Hughes et al., 2007).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 이외에도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cumu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theory)의 적용은 종단적인 시각에서 손자녀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가족내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이 소개되고 있다(O'Rand and Landerman, 1984; DiPrete and Eirich, 2006; Wakabayashi and Donato, 2006). Merton(1968)이 처음 소개한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은 같은 코호트(cohorts)라 하더라도 생애과정

중 이전단계에서 행한 행동들에 따라 이후에 경제적 지위나 건강상태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O'Rand, 2002; Ferraro and Kelley-Moore, 2003; DiPrete and Eirich, 2006). 특히 Wakabayashi와 Donato(2006)는 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을 위해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되며,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노년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손자녀 돌봄이 돌봄의 한 형태이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횡단적 연구결과들을(백경훈, 2009; 양혜경, 2016) 고려해 볼 때,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의 적용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건강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과 손자녀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돌봄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돌봄유형을 미돌봄, 지속돌봄, 돌봄전이, 돌봄중단으로 구분하고,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없는 조모에 비해 돌봄경험이 있는 조모가 건강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

본 연구는 손자녀돌봄과 조부모의 건강과의 관계를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cumu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theory)을 적용하여 이해해보고자 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은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이용하여, 가족내에서의 비공식적 돌봄 역할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Crystal and Shea, 2002; DiPrete and Eirich, 2006; Wakabayashi and Donato, 2006).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처음 소개한 Merton(1968)은 과학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나타낸 연구자들은 연구성과가 없는 동료들보다 더 많은 자원(예; 학자적 명성, 연구의 기회)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성과의 혜택(advantages)은 점차 축적되어(accumulative) 증가한다고 하였다(Merton, 1968; Allison et al., 1982; DiPrete and Eirich, 2006; Bakk, 2012). 반대로 초기 성과를 내지 못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분야에서의 명성이나 연구자원을 획득하는데 불이익(disadvantages)을 받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불이익도 증가하게 된다(O'Rand, 2002; DiPrete and Eirich, 2006).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성과를 낸 연구자와 그렇지 못한 연구자는 명성이나 연구실적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Merton, 1968). 이후 몇몇 사회학자들은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적용하여 같은 코호트(cohorts)에 속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건강, 또는 경제력에서 개인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O'Rand, 2002; Ferraro and Kelley-Moore, 2003; DiPrete and Eirich, 2006; Dupre, 2008). 예를 들면, Dupre(2008)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통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가 개인의 생애전반에 걸쳐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는 낮은 교육수준이 개인 간 건강수준 차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차이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생애초기의 교육수준이 생애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Ferraro와 Kelley-Moore(2003)도 이 이론을 적용하여 같은 코호트내에 있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생애 이전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발생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 간 신체적 건강상태 차이는 더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Ferraro와 Kelley-Moore(2003)는 45세 이상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서, 40대에 비만상태였던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건강이 좋지 않으며, 20년이 흐른 후 이들의 건강차이는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박선권(2012)은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적용하여, 같은 노년기에 있더라도 개인 간 건강수준이나 경제·사회적 위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애기간 동안에 발생한 개인의 행동들에 대해 사회가 제공하는 이익과 불이익의 차이가 점점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여성의 돌봄노동에 초점을 두는 학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역할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O'Rand and Landerman, 1984; DiPrete and Eirich, 2006; Wakabayashi and Donato, 2006). 이들 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비공식적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있고, 생애과정에서 저평가된 돌봄노동을 수행한 여성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은 남성보다 부정적인 결과(예를들면, 노년기 여성들의 높은 빈곤확률 및 적은 연금소득)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O'Rand와 Landerman(1984)은 자녀양육은 여성의 전업근로(full-time job)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는 노년기의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Wakabayashi와 Donato (2006)는 부모를 부양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부양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노후에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즉 부모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소득과 공공부조를 받는 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 돌봄노동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8년이 지난 후에 소득이 감소하거나 공공부조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조부모가 제공하는 손자녀 돌봄 또한 돌봄의 형태에 해당될 수 있고,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손자녀돌봄과 여성의 건강이 부적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백경훈, 2009; 양혜경, 2016)들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은 장기적 관점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이 돌봄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불리한 상황(예를 들면 낮은 건강상태)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손자녀 돌봄은 중·고령층 여성의 역할 중 하나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활동이나(정순돌 외 2015; Jun, 2015) 종단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누적적 이익/불이익의 이론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자녀 돌봄유형에 따라 여성의 건강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손자녀 돌봄

손자녀 돌봄은 생애과정에서 중·고령층에 발생하는 역할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Jun, 2015). 특히 한국은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3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ee and Bauer, 2010; Chen et al., 2011). 최근 1인 노인가구 및 부부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조부모, 성인자녀 및 손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Park et al., 2005; Kim and Cook, 2011; Chin, et al., 2012), 조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고강도의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도 발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의 70%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아동의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같은 조사에서 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의 60%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와 Bauer(2010)는 한국의 조모는 손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평균 주 52시간 이상의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고려해볼 때 고강도의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손자녀 돌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선행연구들은 성별을 구분하거나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백경훈, 2009; 정순돌 외, 2015; 김혜진, 2016; Hughes et al., 2007). 예를 들면 손자녀돌봄과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정순돌 외, 2015; Hughes et al., 2007). 이 연구들은 우리사회에서 돌봄은 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손자녀돌봄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유교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문화는 가족내에서 자녀양육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였다(Maehara and Takemura, 2007; Jun, 2015). Lee(2009)는 이런 사회적 기대는 손자녀돌봄 역시 조부보다는 조모의 역할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제로 과거 농경사회에서 한국의 할머니는 주양육자인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왔으며(Lee and Bauer, 2010), 최근 한국의 손자녀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조부보다 조모가 손자녀를 더 돌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진지혜·안정신, 2012; 김미령, 2014; Lee and Bauer, 2010). 최근에도 한국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젊은 세대에서의 이혼율 증가로 인해 조모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을 증가하고 있어(민기채, 2010; 최해경, 2006), 손자녀돌봄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Lee and Bauer, 2010; Jun, 2015).

3)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

본 절에서는 손자녀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조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들을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조부모의 건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손자녀 돌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백경훈(2009)은 손자녀 돌봄은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고 양육방식의 차이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갈등이나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조부모의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였다(김교성·유재남, 2012; 전해정 외, 2013).

먼저, 손자녀돌봄과 신체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백경훈(2009)은 만성질환 및 조부모가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통증을 이용하여 손자녀돌봄이 조모의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손자녀돌봄이 조부모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김문정(2007)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손자녀 돌봄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은 스스로 빠른 노화를 경험하거나 스스로를 간호하는데 소홀해지고 만성적인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손자녀돌봄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삶의 만족도, 우울 등의 항목을 이용하여 손자녀돌봄이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백경훈(2009)은 주40시간 이상 및 연간 48주 이상의 고강도의 손자녀돌봄을 제공한 여성의 경우 저강도의 손자녀돌봄을 제공하거나 손자녀를 돌보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해정 외(2013)은 손자녀 양육자로 전이한 경험이 있는 조부모와 전이 경험이 없는 조부모간에 우울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전해정 외(2013)는 손자녀돌봄이 중년층의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김교성과 유재남(2012)은 손자녀돌봄이 노인의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손자녀를 돌볼수록 노인의 초기 삶의 만족도는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만족도의 증가수준은 빨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양육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지만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면서 경험하는 보람, 성취감으로 인해 돌봄경험이 없는 조부모보다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김교성·유재남, 2012).

미국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손자녀돌봄과 조부모의 건강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먼저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Fuller-Thomson과 Minkler(2000)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돌보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도 손자녀돌봄이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예를들면, 건강문제에 대해 소홀하거나 통증을 느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Minkler and Roe, 1993; Bullock, 2004). 다음으로 정

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 또는 삶의 만족도를 통해 손자녀돌봄이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Musil 외(2013)는 손자녀돌봄과 조부모의 우울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 Giarrusso 외(1996)는 손자녀돌봄은 조부모의 우울수준을 낮추거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Hughes 외(2007)는 손자녀돌봄이 조부모의 우울수준을 낮출 수 있으나 이런 관계는 조모에게서만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편 손자녀돌봄을 연구함에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돌봄의 역할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전혜정 외, 2013; 정순돌 외, 2015; Minkler et al., 1997; Hughes et al., 2007; Baker and Silverstein, 2008). 개인들은 생애과정 중 다양한 역할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 역할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Pearlin, 1989; Moen et al., 1995). 손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시작한 때에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본인의 건강에 소홀할 수 있으나 돌봄 역할에 적응한 이후에는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Baker and Silverstein, 2008). Baker와 Silverstein(2008)은 돌봄유형을 미돌봄, 돌봄전이, 지속돌봄으로 구분한 후 돌봄유형에 따라 건강증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돌봄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조모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확률이 높은 반면, 지속적으로 손자녀돌봄을 수행한 조모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전혜정 외(2013)는 손자녀를 돌보기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조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손자녀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정순돌 외(2015)는 돌봄유형에 따라 가족간 관계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손자녀돌봄의 상태변화를 미돌봄, 돌봄전이, 돌봄중단, 지속돌봄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돌봄상태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전혜정 외, 2013; 정순돌 외, 2015).

이와 같이 손자녀돌봄과 조부모의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손자녀돌봄이 조부모의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로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종단적 시각에서 손자녀 돌봄경험에 따라 여성의 건강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의 돌봄노동에 초점을 둔 일부 국외 학자들은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적용하여 돌봄노동이 돌봄제공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이론을 한국의 여성에게 적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론의 기능 중 하나가 사회현상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Thomas, 1997),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이 손자녀를 돌보는 한국여성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토대로 손자녀돌봄이 한국의 중·고령층의 여성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중단적인 시각에서 손자녀돌봄 유형에 따라 여성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손자녀 돌봄유형이 여성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손자녀 돌봄유형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본조사 자료부터 5차년도 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전국의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고용 및 은퇴 등의 경제활동 상태,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며, 2005년도에 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격년마다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본조사 및 3차, 4차, 5차 본조사에서 손자녀돌봄과 건강수준에 모두 응답한 여성 2,987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1차 본조사는 만 19세 이하의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조사한 반면 2차 본조사부터는 만 10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을 정의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1차 본조사 자료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손자녀돌봄이 생애주기에서 중·고령층에 있는 개인들에게 발생하는 역할로 간주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대상자를 중·고령층에 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도 만 50세 이상으로 연령을 한정하고 있다(김미령, 2015; 임안나·박영숙, 2015).

3) 측정변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며, 스스로 본인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정의된다. 신체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년도 자료(2013) 중 단일 항목인“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매우 좋지 않다=1”에서“매우 좋다=5”로 측정되었다.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으며, 1점(매우 좋지 않다)에서 5점(매우 좋다)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손자녀돌봄유형이다. 종단적 시각에서 손자녀 돌봄유형을 구분한 선행연구들은 일정기간동안 돌봄 상태가 시작되거나 유지 또는 변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돌봄유형을 돌봄전이(전혜정 외, 2013), 일시돌봄/지속돌봄(하석철·홍경준, 2014), 돌봄전이/돌봄중단/지속돌봄(정순돌 외, 2015), 돌봄전이/지속돌봄(Baker and Silverstein, 2008)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정순돌 외(2015)는 돌봄유형을 돌봄지속여부나 돌봄전이, 돌봄중단으로 구분하여 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순돌 외(2015)의 연구를 토대로 손자녀돌봄 유형을 미돌봄, 돌봄지속, 돌봄중단, 돌봄전이 형태로 구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시각에서의 손자녀돌봄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2007)부터 5차년도 자료(2013)를 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조부모가 돌봐주고 있는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조부모에 대해서 돌봄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조모를 파악하기 위해 2차부터 5차 자료의 돌봄시간을 이용하였다. 즉 노후보장패널자료의 각 차수별로 돌봄시간에 응답하지 않은 조모는 “손자녀돌봄 제공안함=0”으로, 돌봄시간을 응답한 조모는 “손자녀 돌봄 제공함=1”으로 코딩한 후, 2차년도 자료부터 5차년도 자료까지 손자녀 돌봄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경우 돌봄지속으로 코딩하였다. 반면, 2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돌봄경험이 있더라도 5차년도에 손자녀돌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돌봄중단, 2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돌봄경험이 없더라도 5차년도에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 돌봄전이, 마지막으로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돌봄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미돌봄으로 코딩하였다. 기준변수를 미돌봄으로 하여 돌봄지속, 돌봄중단, 돌봄전이를 분석과정에서 더미변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으며 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사용되었고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으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대해 더미코딩하고 무학력이 기준변수로 사용되었다. 가구소득은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약 10%가 소득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최종분석에서는 무응답 대체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Little과 Rubin(2002)은 결측치 비율이 5%-20%일 경우 무응답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종단적 효과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은 종속변수의 사전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전혜정 외, 2013; 정순돌 외, 2015; Wakabayashi and Donato, 2006).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손자녀돌봄 유형이 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조모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도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에서 조사된 조모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노후보장패널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조사된 손자녀 돌봄유형이 노후보장패널 5차년도에 조사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후, 종단적인 관점에서 손자녀돌봄 유형이 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와 관련된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3.9세였으며 60세부터 69세가 전체 대상자의 40%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941명(31.5%), 초등학교 졸업이 1,164(39.0%), 중학교 졸업이 458명(15.3%), 고등학교 이상은 424명(14.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있었으며(1,966명, 65.8%), 1,021명(43.2%)은 배우자가 없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평균 연소득이 23,400천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353명(11.8%)은 손자녀 돌봄경험이 있었으나 5차년도 당시에는 중단되었다고 응답했고, 돌봄전이는 84명(2.8%), 지속돌봄은 18명(0.6%)으로 나타난 반면 2차년도부터 5차년도 동안 손자녀돌봄경험이 없는 조부모는 2,532(84.80%)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자들은 신체건강수준에 대해 평균 3.22점, 정신건강수준에 대해 평균 2.74점으로 응답하였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경우 “보통이다”가 3점으로 코딩된 점을 고려해볼 때, 조사연구대상자들은 신체건강은 보통이상, 정신건강은 보통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자녀돌봄 경험유무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t-test 결과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이 돌봄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이가 어리고 소득수준이 높았다($p < .05$).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손자녀돌봄경험이 없는 여성 중 33.0%는 무학, 38.8%는 초등학교를 졸업, 14.4%는 중학교를 졸업한 반면 손자녀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은 23.1%가 무학, 42.9%는 초등학교를 졸업, 20.4%는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chi-square test 결과 이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했다($p < .001$). 또한 배우자유무와 관련하여 손자녀돌봄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p < .001$).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손자녀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이 돌봄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학력이 높고 배우자가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t-test 결과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높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수준을 보였다($p < .0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전체(n=2,987)	전체(n=2,532)	전체(n=455)
		N(%)/평균(편차)	N(%)/평균(편차)	N(%)/평균(편차)
연령	50~59세	1,001(33.5)	794(31.4)	207(45.5)
	60~69세	1,220(40.8)	1,023(40.4)	197(43.3)
	70세 이상	766(25.6)	715(28.2)	51(11.2)
	전체연령	63.95(8.172)	64.48(8.336)	60.98(6.439)
교육	무학	941(31.5)	836(33.0)	105(23.1)

구 분		전체(n=2,987)	전체(n=2,532)	전체(n=455)
		N(%) / 평균(편차)	N(%) / 평균(편차)	N(%) / 평균(편차)
수준	초등학교졸업	1,164(39.0)	969(38.3)	195(42.9)
	중학교졸업	458(15.3)	365(14.4)	93(20.4)
	고등학교이상	424(14.2)	362(14.3)	62(13.6)
배우자 유무	배우자없음	1,021(34.2)	898(35.5)	123(27.0)
	배우자있음	1,966(65.8)	1,634(64.5)	332(73.0)
가구소득(단위:천원)		23,400(26255.88)	22,405(25772.46)	28,945(28192.22)
손자녀 돌봄	미돌봄	2,532(84.8)	2,532(100)	-
	돌봄중단	353(11.8)	-	353(77.6)
	돌봄전이	84(2.8)	-	84(18.5)
	돌봄지속	18(0.6)	-	18(4.0)
건강 수준	신체건강	3.22(.834)	3.21(.833)	3.31(.835)
	정신건강	2.74(.933)	2.70(.932)	2.91(.918)

*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 자료

** 손자녀돌봄 :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5차 자료

*** 건강수준 :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

2) 손자녀돌봄유형이 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돌봄유형이 만 50세 이상 중·고령층 조모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9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가구소득, 그리고 4차년도의 신체적 건강수준을 통제변수로, 손자녀돌봄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중·고령층 조모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통제변수에서는 배우자 유무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그리고 4차년도의 신체적 건강수준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감소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전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응답자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형 변수인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무학인 조모에 비해 초졸, 중졸,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조모의 경우 신체적 건강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 손자녀 돌봄여부에 관해서는 미돌봄에 비해 돌봄중단은 신체적 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손자녀를 돌보다가 5차년도에 돌봄중단을 경험한 조모의 경우 돌봄경험이 전혀 없는 조모에 비해 신체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돌봄에 비해 돌봄전이는 높은 신체건강 수준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p < .05$). 반면 돌봄지속의 경우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미돌봄에 비해 낮은 신체건강 수준을 보였다($B = -.350, p = .063$)

다음 2단계에서는 손자녀돌봄 유형이 조모의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가구소득, 그리고 4차년도의 정신적 건강을 통제변수로, 손자녀 돌봄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수에서는 연령, 교육수준(기준 변수: 무학), 가구소득 그리고 이전 정신적 건강수준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자녀 돌

봄유형과 조모의 정신적 건강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표 2〉 손자녀 돌봄유형이 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신체건강		정신건강	
		B	S.E	B	S.E
상수		2.301***	.282	2.789***	.259
연령		-.019***	.002	-.015***	.00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126**	.041	.137***	.038
	중학교 졸업	.172**	.055	.190***	.051
	고등학교 이상	.270***	.055	.253***	.050
배우자유무		.031	.037	.050	.035
가구소득		.064**	.019	.054**	.017
이전 신체 건강		.310***	.018	-	-
이전 정신 건강		-	-	.212***	.018
손자녀 돌봄	돌봄중단	.123*	.049	.010	.045
	돌봄전이	.064	.091	.081	.084
	돌봄지속	-.350	.188	-.011	.174
R ²		.230***		.153***	
Adjusted R ²		.228		.150	
F		86.626		52.511	

* 각 변수별 기준: 성별(남성=0), 교육수준(무학=0), 배우자유무(배우자 없음=0), 손자녀돌봄(돌보지 않음=0)

**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2007) 자료부터 5차년도(2013) 자료를 이용하여 손자녀돌봄이 50대 이상 중·고령층 조모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바탕으로 중단적 시각에서의 손자녀돌봄 유형과 조모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손자녀돌봄 유형을 돌봄중단, 돌봄전이, 돌봄지속, 그리고 미돌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 돌봄 유형과 중·고령층 여성의 신체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사기간 동안 손자녀 돌봄을 중단한 여성은 돌봄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신체건강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손자녀 돌봄은 조모로 하여금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이재림, 2013; Baker and Silverstein, 2008),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었던 여성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함으로

씨 좋은 신체건강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모형에서 손자녀 돌봄 전이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돌봄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신체적 건강수준은 높았지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돌봄중단과 조모의 신체건강과의 정적 관계는 횡단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손자녀돌봄이 조모의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백경훈, 2009)와는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횡단적 시점에서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달리, 종단적 시점에서 손자녀 돌봄은 조모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는 연구설계에 따라 변수들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 손자녀 돌보는 과정이 여러 신체적 활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건강이 좋은 조모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신체건강과의 정적관계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이 손자녀 돌봄이 한국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즉 이 이론은 미국 등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한 여성이 돌봄 경험이 없는 개인에 비해 노후에 빈곤할 확률이 높거나 낮은 소득수준을 갖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설명해왔다(O'Rand and Landerman, 1984; DiPrete and Eirich, 2006; Wakabayashi and Donato, 2006; Lee et al., 2015). 따라서 서구사회와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하에 손자녀를 돌보는 한국 노인들의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주의 사상에 의해 조부모, 성인자녀, 그리고 손자녀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존재해왔으며(Chen et al., 2011), 이런 문화 속에서 조부모들은 성인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손자녀 돌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최인희 외, 2012). 따라서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이런 태도가 조모의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여성들이 있음이 보고되었다(이재림, 2013). 따라서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적용하여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여성들이 노후에 건강이나 경제상태에서 불평등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논의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한국 조모에게 적용할 때는 문화적인 차이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손자녀 돌봄이 한국의 조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계적으로(marginally) 유의미한 수준에서, 돌봄지속은 중·고령층의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50, p = .063$). 즉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손자녀 돌봄을 제공한 개인은 돌봄 경험이 없는 개인에 비해 낮은 신체건강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돌봄지속에 해당하는 사례수를 확보하여 손자녀돌봄과 중·고령층의 신체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손자녀 돌봄유형이 중·고령층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손자녀 돌봄과 여성의 정신건강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해정 외(2013)의 논의처럼, 손자녀 돌봄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변수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손자녀 돌봄과 조모의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한 백경흔(2009)의 연구에서는 돌봄의 강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손자녀 돌봄 유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손자녀 돌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를 통해 정신건강을 측정할 반면(백경흔, 2009; 김교성·유재남, 2012; 전해정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상태를 질문하는 단일항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건강(psychological well-being)이 정서적, 사회문화적, 의학적 요소 등 다차원적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Baker et al., 2005), 정신건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일항목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한 본 연구결과와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 등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한 연구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실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특히 여성)의 수가 증가하므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에 대한 교육 등의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건강악화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해 손자녀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 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년기에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어 있는데(전혜정 외, 2013),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손자녀 돌봄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등의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록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지만 손자녀 돌봄을 지속한 여성의 경우 돌봄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신체건강 수준이 낮은 반면 돌봄을 중단한 여성은 신체건강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향후 노인을 위한 건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손자녀 돌봄여부 및 지속유형에 따라 신체적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건강수준이 낮은 여성들을 위한 개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볼 때(김문정, 2007), 육아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거나 여성만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50세 이상의 여성만을 포함했으며, 따라서 50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연구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노후보장패널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손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본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적었으며, 이런 적은 표본크기는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OVA에서 범주형 변수의 차이를 검증할 때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가 5개 이상이고 ANOVA와 회귀분석의 과정이 비슷한 점을 고려해볼 때(최은희, 2015; Alkharusi, 2012), 돌봄지속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원인이 적은 표본 수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집단의 적은 표본 수는 그 집단이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바(김혜진, 2016), 향후 손자녀 지속돌봄 집단의 사례수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손자녀 돌봄의 중단적 유형이 중·고령층의

여성의 신체건강과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는 돌봄중단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여성의 노후 생활을 이해하는데 있어, 손자녀돌봄 제공뿐만 아니라 지속유형에 따라 두 요인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 이론이 노년기에 있는 한국 여성의 건강상태 등 노후생활을 이해하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함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이 손자녀 돌봄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며 이는 돌봄에 관한 후속 연구에 이론적 배경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교성·유재남, 2012.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소득 계층에 관한 중단연구”, 『노인복지연구』, 58(단일호): 163-187.
- 김문정,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7(6): 914-923.
- 김미령, 2014. “손자녀돌봄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6(1): 178-204.
- 김미령, 2015. “중·고령자의 노후연령인지 및 차이연령 영향 연구: 여성과 남성의 비교”,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53-78.
- 김영근, 2008. “노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3): 99-110.
- 김정연·이석구·이성국, 2010.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30: 471-484.
- 김혜진, 2016. “손자녀 돌봄과 중, 고령자의 주관적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과 남성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2): 299-320.
- 민기채, 2010.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구성원과 총소득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30: 323-341.
- 박상규, 2006.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85-796.
- 박선권, 2012.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 추세, 정책적 함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단일호): 73-101.
-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단일호): 291-318.
- 백경훈, 2009.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 10(2): 87-112.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서울:보건복지부.
- 양혜경, 2016.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1-23.
- 이재림, 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세대 간 지원제공 및 수혜의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 임안나·박영숙, 2015.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노년기 시작연령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

- 정학보』, 29(3): 349-364.
- 전혜정 · 조규영 · 박민경 · 한세황, 2013,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 정순돌 · 박애리 · 기지혜, 2015, “손자녀 돌봄의 중단적 유형과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6(3): 45-73.
- 정주원 · 송현주, 2012, “60대 중고령자들의 주관적 노후인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7(단일호): 333-355.
- 진지혜 · 안정신, 2012, “유아의 기질과 조부모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 친밀감의 중재 효과”, 『한국노년학』, 32(4): 1025-1039.
- 최은희, 2015, “기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통계학적 방법 유형과 오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4).
- 최인희 · 김영란 · 염지혜, 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해경, 2006,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115-142.
- 통계청(2015). 『2015 고령자통계』, 서울:통계청.
- 하석철 · 홍경준, 2014,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성인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돌봄 지속 유형에 따른 경제적 지원 기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3): 51-77.
- Alkharusi, H., 2012, “Categorical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a comparison of dummy and effect co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4(2): 202-210.
- Allison, P. D., Long, J. S., and Krauze, T. K., 1982, “Cumulative advantage and inequality in sci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5): 615-625.
- Baker, L. A., Cahalin, L. P., Gerst, K., and Burr, J. A., 2005, “Productive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The influence of number of activities and time commit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3): 431-458.
- Baker, L. A., and Silverstein, M. 2008.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mong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5): S304-S311.
- Baker, L. A., Silverstein, M., and Putney, N. M. 2008.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Changing family forms, stagnant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etal & social policy*, 7: 53-69.
- Bakk, L., 2012, Gender and racial disparities in cost-related medication nonadherence: the effect of Medicare Part D and factors impacting compliance among older women and Black American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Bullock, K., 2004, “The changing role of grandparents in rural families: The results of an exploratory study in southeastern North Carolina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85(1): 45-54.
- Chen, F., Liu, G., and Mair, C. A. 2011. “Intergenerational ties in context: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in China”, *Social Forces*, 90(2): 571-594.
- Chin, M., Lee, J., Lee, S., Son, S., and Sung, M., 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Development,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1): 53-64.
- Crystal, S., and Shea, D. G., 2002, “Introduction cumulative advantage, public policy, and late-life inequality”,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22(1): 1-13.
- DiPrete, T. A., and Eirich, G. M., 2006, “Cumulative advantage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Dupre, M. E. 2008. Educational differences in health risks and illness over the life course: A test of 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253-1266.
- Ferraro, K. F., and Kelley-Moore, J. A., 2003, “Cumulative disadvantage and health: long-term consequences of obes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5): 707-729.
- Fuller-Thomson, E., and Minkler, M., 2000, “Articles-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Grandmother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6(4): 311-324.
- Giarrusso, R., Feng, D., Wang, Q.-W., and Silverstein, M., 1996, “Parenting and co-parenting of grandchildren: effects on grandparents’ well-being and family solid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16(12): 124-154.
- Hayslip, B., and Kaminski, P. L. 2005.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The Gerontologist*, 45(2): 262-269
- Hughes, M. E., Waite, L. J., LaPierre, T. A., and Luo, Y., 2007, “All in the family: The impact of caring for grandchildren on grandparents’ healt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2): S108-S119.
- Jun, H. J., 2015, “Educational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Functioning of Grandmothers Caring fo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Research on aging*, 37(5): 500-523.
- Kim, E. H.W., and Cook, P. J., 2011,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children in relieving elder poverty: Evidence from Korea”, *Ageing & Society*, 31(6): 953-976.
- Lee, J., 2009,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grandmaternal childcare for employed mothers in South Kore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Lee, J., and Bauer, J. W., 2010, “Profiles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3): 455-475.
- Little, R., and Rubin, D., 1987,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New York: Wiley*.
- Maehara, T., and Takemura, A. 2007. “The norms of filial piety and grandmother roles as perceived by grandmothers and their grandchildren in Japan and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6): 585-593.
- Merton, R. K., 1968, “The Matthew effect in science”, *Science*, 159(3810): 56 - 63.
- Minkler, M., Fuller-Thomson, E., Miller, D., and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5): 445-452.
- Minkler, M., and Roe, K. M., 1993, Grandmothers as caregivers: Raising children of the crack cocaine epidemic. *Sage Publications, Inc.*
- Moen, P., Robison, J., and Dempster-McClain, D. 1995. “Caregiving and women’s well-being: A life course approac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3): 259-273.
- Musil, C. M., Jeanblanc, A. B., Burant, C. J., Zauszniewski, J. A., and Warner, C. B., 2013,

- “Longitudinal analysis of resourcefulness, family strain, and depressive symptoms in grandmother caregivers”, *Nursing outlook*, 61(4): 225-234.
- OECD, 2013,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at age 65”, in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life-expectancy-at-birth-females__20758480-table6.
- O’Rand, A. M., 2002, “Cumulative advantage theory in life course research”,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22: 14-30.
- O’Rand, A. M., and Landerman, R. 1984. “Women’s and Men’s Retirement Income Status Early Family Role Effects”, *Research on Aging*, 6(1): 25-44.
- Park, K. S., Phua, V., McNally, J., and Sun, R., 2005, “Diversity and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Elderly parent - adult child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0(4): 285-305.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3): 241-256.
- Thomas, G., 1997, “What’s the use of theory?”, *Harvard Educational Review*, 67(1): 75-104.
doi:10.17763/haer.67.1.1x807532771w5u48
- Wakabayashi, C., and Donato, K. M., 2006, “Does caregiving increase poverty among women in later life? 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7(3): 258-274.
- Yang, S., Khang, Y. H., Harper, S., Smith, G. D., Leon, D. A., and Lynch, J., 2010, “Understanding the rapid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n South Kore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5): 896-903.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and the Health of Middle and Old-aged Women

Kim, Hye Jin

(University of Kansas,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Korean women in later life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and the health of women who aged above 50 years old. Focusing on the longitudinal patterns of providing care of grandchildren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waves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and regression to analyze the data.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women who stopped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physical health status in later life than those who providing no care between the second wave to the fourth wave of the KReIS($p < .05$). In addition, women who have continuously provided care for grandchildren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physical health status at marginally significant level.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and women's psychological health stat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are the different findings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and physical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based on the longitudinal patterns of providing care of grandchildren. Lastly this paper discusse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er and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Key words : The middle and old aged women,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논문 접수일 : 16. 10. 03, 심사일 : 16. 10. 24, 게재 확정일 : 16. 12. 01]